

2026. 3. 31.(화)
 Vol. 41

우리 팀 소개, ⑩ 물류지원팀

제품 입고부터 보관, 재고관리, 출고까지... 고고고.
 “책임있는 입GO, 안전사고 없GO, 정확하게 출GO”

Q. 물류지원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물류지원팀장 박동수입니다. 우리 물류지원팀 인원은 총 207명으로 6개 제품장에 기중기 37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형강·철근 등의 생산 제품을 제품장 입고부터 보관, 재고 관리, 출하까지 인천공장 생산 제품 전체 물류 프로세스를 책임지는 부서입니다. 철강은 다루기 쉽지 않은 품목입니다. 무겁고 부피가 큰 철강 제품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취급하려면 남다른 섬세함과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물류지원팀은 ‘출하가 곧 매출이다’라는 생각으로 매일 생산 작업자·중장비 운전자·출하 차량기사 등 다양한 관계자와 긴밀히 협업하고 소통하며 안전한 작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물류지원팀 올해의 목표는?

통합 운영을 시작하는 철근형강제품장의 조기 안정화입니다. (구)철근제품장과 (구)수출제품장이 통합되어 새롭게 철근형강제품장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제품장이기에 안전 작업을 기반으로 시행착오 없이 진행해야 하는 부담감이 크지만, 회사의 전폭적인 지원과 팀원들의 적극적인 협력, 그리고 주관부서인 제품출하팀의 도움을 받아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속한 조기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합심하여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Q. 물류지원팀의 자랑거리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현장 기술직이 회사 전체의 4분의 1이 넘는 큰 조직임에도 의사소통이 빠르고, 실행력이



▲왼쪽부터 조영호 책임매니저, 윤상규 매니저, 박동수 팀장, 봉유환 계장, 한윤석 계장, 김영호 기장, 김진호 계장, 송민우 기장, 김진호 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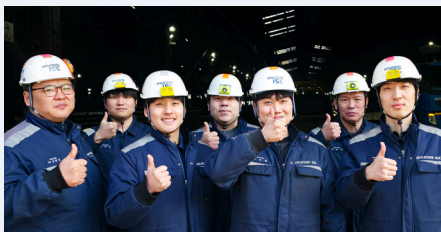
강합니다. 물류의 특성상 내·외부 다양한 사람과 소통해야 되고, 급변하는 환경에 따라 민첩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각자가 담당하는 직무에서 주도적으로 책임감 있게 업무를 합니다. 또한 팀은 혼자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 거리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부탁해 보았습니다.

- 김진호 기장 (대형1제품장) : 대형1제품장은 H형강의 ‘첫 이동’부터 ‘마지막 출발’까지 책임지는 현장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정의 흐름을 지키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자 자부심입니다.
- 송민우 기장 (대형2제품장) : 출고 덩고 준비 오고... 힘든 옥외 환경에서도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책임감도 투철한데 팀원 대다수가 부드럽고 유머 감각도 뛰어납니다.
- 김영호 기장 (중형1제품장) : 중형1제품장은 다품종을 취급하기 때문에 기중기 운전자와 인수 작업간에 협력이 중요합니다. 서로 바쁘지만 돕는 문화가 자랑입니다.
- 한윤석 계장 (중형2제품장) : 물류지원팀은 생산된 제품을 고객까지 정확하게 연결하는 현장의 시작이자, 마침표라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물류지원팀의 「철근형강제품장」을 소개합니다.



▲왼쪽부터 박찬영 주임, 최광윤 주임, 김병문 사원, 박광호 사원, 성해표 주임



▲왼쪽부터 김창연 주임, 이재연 사원, 이현상 사원, 진주호 사원, 신윤철 사원, 김덕수 사원, 허창준 사원

Q. 철근형강제품장은 어떤 제품을 취급하며 무슨 일을 하시나요?

- 김진호 계장 (철근형강제품장) : 철근형강제품장은 대형·중형압연공장에서 생산된 H형강과 철근압연공장의 철근 제품을 입고, 재고관리, 출하하는 제품장입니다. 천정기중기 운전, 인수도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Q. 철근형강제품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 봉유환 계장 (철근형강제품장) : 안전 작업을 항상 최우선으로 마음에 두고 작업에 임합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되는 건, 물류는 재화를 다루는 팀으로 물류 자산에 대한 주인 의식이 필수이며,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고객사에게 신뢰받는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철근형강제품장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다면?

- 신윤철 사원 (철근형강제품장) : 서로 다른 제품장이 하나로 합쳐져 철근형강제품장으로 운영되다 보니 자유롭고 수평적인 분위기입니다. 업무노하우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며 서로의 장점을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Q. 통합운영하면서 조기 안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 김창연 주임 (철근형강제품장) : 팀의 안전방침 준수입니다. 첫째로 작업표준의 절차를 준수하고 위험성을 인지하고 작업하려고 노력하며, 임의 작업이 있을 경우 직책자와 협의 후 작업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동료의 안전 보살피기입니다. 동료가 불안정한 행동을 하거나 안전보호구 착용이 미비할 경우 상시 소통하려고 합니다.

Q. 물류지원팀이나 철근형강제품장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 박광호 사원 (철근형강제품장) : 2026년 한 해를 무재해로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행복하십시오.

물류지원팀에 한마디 한다면?

- 윤상규 매니저 : 회사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팀이 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일하겠습니다.
- 김현수 계 장 : 정확한 적치, 안전한 상차, 철저한 제품 관리로 물류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는 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창원 계 장 :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 최문용 계 장 : 제철, 운송사, 장비사 등 다양한 조직의 사람들과 협업하여 행복한 직장 생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호 “성장” 테마 추천도서 물류지원팀 유규상님의 추천도서 이야기



오늘도 사소한 일에 화를 냈습니다.

자기능력개발 | 와다 히데키

우리가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는 이유는 스트레스, 피로, 습관적인 사고방식 때문임을 설명한다. 바꿀 수 있는 일과 바꿀 수 없는 일을 구분하고, 불필요한 경쟁이나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을 이해하며 마음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고, 보다 여유롭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도록 돕는 책이다.

Q. 도서 추천 이유를 여쭙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물류지원팀 유규상 주임입니다. 이번 ‘성장’이라는 주제에 맞춰 이 책을 추천하고 싶어요. 평소 와다 히데키 작가님의 글을 좋아하는데, 이 책은 가정이나, 회사생활에서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들어, 업무 중 사소한 일로 화가 날 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잠시 미뤄도 되는 일을 구분하고, 불필요한 경쟁이나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마음을 내려놓으면 훨씬 편안해져요. 이런 작은 습관을 꾸준히 쌓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힘이 생기고, 동료와의 관계도 부드러워지며, 이것은 결국 자기성장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Q. 기억에 남는 말이 있다면요?

마음에 남았던 말은 “좋은 사람에서 벗어나 내 자신에게 집중하라”예요. 우리는 남을 배려하느라 에너지를 많이 쓰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이 문장은 나를 돌아보게 만들고, 스스로를 인정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책 전체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를 딱 보여주는 느낌이에요.

Q.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이 책은 단순히 화를 참는 법을 알려주는게 아니에요. 자신을 이해하고 마음의 부담을 줄이는 법을 알려 주면서, 한 단계 성장하는 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집에서 가족에게 예민해질 때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감정을 이해하는 연습을 한다면 가족과의 관계가 훨씬 편안하고 따뜻해질 수 있어요. 일상 속 작은 순간 자신과 주변을 조금 더 여유롭게 바라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유규상 주임처럼, 전자도서관에서 마음의 작은 위로를 느껴보세요! 전자도서관은 언제나 여러분의 독서를 응원합니다.

“봄” 추천도서 코너 따뜻한 봄날, 마음에 남는 한 권의 책

따뜻한 햇살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떠올리게 하는 계절,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추천도서 코너에서는 “봄”을 주제로 여러분의 책을 추천받고자 합니다. 새로운 시작, 변화, 설렘 등 봄과 어울리는 책이라면 자유롭게 추천해 주세요.

책 한 권이 생각을 바꾸고, 그 생각이 우리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 이번 추천도서 “테마”는 ?

봄

• 참여 방법

1 전자도서관에서 “테마와 어울리는 책” 읽기

2 책 추천 이유와 감상평 작성하기 (*자유양식)

3 메일로 보내기 (hkh7631@hyundai-isc.com)

• 참여 기간

2026년 4월 10일(금) 까지

• 시상

심사 후 우수 추천작 선정 ▶ 선정자 개별 안내 및 사보 공지 ▶ 소정의 선물 증정 (EX. 텀블러)

2026년 철강산업 전망에 대하여

주요 경제연구소의 최신 자료(2025년 하반기~2026년 초 발표)를 종합해보면 2026년은 '국내 시장의 장기 침체 속 생존을 위한 체질 개선의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철강산업 전망: L자형 침체와 전환점

한국 철강산업은 2026년을 기점으로 반등을 노리지만, V자 반등보다는 바닥을 다지는 'L자형' 흐름이나 매우 미미한 회복(0.6%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철강 수요의 버팀목인 건설 경기가 장기 침체 국면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어, 철근과 형강 등 봉형강류의 수요 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업은 수주 물량 덕분에 후판 수요가 견조할 것으로 보이나 이것만으로 전체 산업의 활력을 되살리기엔 역부족이다.

더불어 2026년 수출환경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화 약세는 수출에 유리할 수 있으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EU의 CBAM(탄소국경조정 제도) 본격 시행, 셰이프가드 연장 등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철강사에겐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본다. 2026년도부터는 탄소규제가 현실화되면서 탄소배출 관련 규제가 본격적인 비용부담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는 해이기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출 확대에는 제약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으로는 중국의 내수 부진과 미중 갈등으로 인해 중국 철강사들이 저가 물량을 해외로 밀어내면서 해외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중국으로부터 국내로 저가 철강재 유입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 철강산업은 2026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답은 명확하다. 양적 성장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질적 생존 전략으로 선회해야 한다.

첫째, 수출 지역 다변화가 시급하다. 성장이 멈춘 중국 의존도를 과감히 줄이고, 인프라 투자가 활발한 인도와 동남아시아 시장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 둘째,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포트폴리오 재편이다. 이제는 범용 제품으로는 중국의 저가 공세를 당해낼 재간이 없다. 전기차용 고강도 강판, 친환경 선박용 특수 후판 등 기술 격차를 낼 수 있는 프리미엄 제품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녹색철강(Green Steel) 전환'이다. 탄소감축은 이제 환경 보호의 영역을 넘어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다.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생산 공정으로의 전환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2026년 이후의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 철강 산업의 설 자리는 사라질지도 모른다.

2026년은 국내 철강산업이 깊은 터널을 지나 빛을 볼 수 있을지, 아니면 도태될 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골든타임'이 될 것이다. 위기 속에서도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만이 살아남는다. 지금은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한 때이다.

손영욱 철강산업연구원 대표 (전 포스리 연구위원)

‘기지개’ 한 번으로 안녕! 봄날의 불청객 춘곤증

따뜻한 햇살은 반갑지만, 우리 몸은 급격한 기온 변화에 적응하느라 쉽게 피로를 느낍니다. 비타민 소모량이 늘어나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쏟아지는 졸음, 이른바 ‘춘곤증’이죠. 억지로 참으려 하기보다 잠깐의 스트레칭으로 혈액 순환을 돕고 뇌에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부위별 스트레칭 방법

※ 출처: 산업안전보건공단

1 굳은 목을 유연하게!

1



머리에 손을 얹은 후
옆으로 지그시 당겨주세요

2



양쪽 손을 머리 뒤로
꼭지 낀 후 아래로 당겨주세요

3



엄지손가락을 턱에 대고
위를 향하여 당겨주세요

4



왼을 천천히 그리면서
목을 지그시 돌려주세요

2 굳은 어깨를 활짝!

1



어깨에 손을 올리고
왼을 그리며 돌려주세요

2



팔을 최대한 몸쪽으로
붙여 천천히 당겨주세요

3



팔을 머리 뒤로하여 팔꿈치를
잡고 아래로 눌러주세요

4



등 뒤로 두 손을 맞잡아 가슴을
내민 후 고개를 젓혀주세요

3 빠근한 허리를 가볍게!

1



양쪽 손을 꼭지 낀 후 머리 위로
올려 좌·우로 당겨주세요

2



양쪽 손을 꼭지 낀 후
앞을 팔을 쪽 뻗어주세요

3



양쪽 손을 앞뒤로 두고
허리를 좌·우로 비틀어주세요

4



양쪽 다리를 살짝 굽힌채
좌·우로 허리를 돌려주세요

쏟아지는 잠을 이겨내려 애쓰는 대신, 잠시 일어나 몸의 감각을 깨워보는 건 어떨까요?
짧은 휴식이 더 밀도 있는 업무 시간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직원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봄날을 응원합니다!

사고를 막는 첫 번째 안전장치 작업장 조도 확보

작업장 조도는 작업 환경의 기본 안전장치로, 관리 미흡 시 근로자의 시각 인지 장애와 사고 확대로 직결됩니다.
적절한 조도는 시력 보호, 작업 정확도 향상, 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조도의 중요성

조도는 작업 면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를 의미하며, 작업 대상과 주변 위험요인을 정확히 인지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어두운 환경은 눈의 초점을 어렵게 하여 피로와 오류를 유발합니다.

조도 미확보의 위험성

인지 능력 저하

- 눈이 빛을 충분히 받아 들이지 못해 시야가 흐려지고 인지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 바닥의 요철, 기름 등을 인지하지 못하여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판단 오류

- 눈과 근육의 과도한 부담을 주어 눈의 피로를 유발하고 두통, 졸림, 집중력 저하로 이어지게 되어 판단 오류가 발생합니다.

사각지대 발생

- 전체가 어두운 것이 아닌, 일부 구역만 어두운 경우 밝기의 대비가 눈을 혼동시켜 위험요소를 놓치기 쉬워집니다.

비상 시 대피 지연

- 대피 경로와 피난 위치를 인지하지 못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고 사례



- **개요** : 계단을 통해 지하 1층 방재실로 내려가던 재해자가 넘어져 머리 부분에 손상을 입어 사망함
- **원인** : 지하 1층 계단의 조도가 확보되지 않음
- **대책** : 통행 구간 조도가 75럭스 이상 되도록 조명 개선

● Safety Quiz, 안전 지식 한입 ●

Q.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공공장소와 사업장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의 영어 약자는 무엇일까요?

- **응모방법** : 정답/소속부서/사번/직책/이름/연락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 **보내실곳** : bin9506@hyundai-isc.com (황원빈 매니저)
- **포상지급** : 추첨을 통하여 총 20명 5,000포인트/인 마일리지 지급
- **응모기간** : 2026년 4월 8일 (수) 까지

* 직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당첨자 명단 40호 'Safety Quiz' 정답 : 6개월, 1회
(밀폐공간 긴급구조 훈련 : 6개월에 1회 이상 주기적 실시)
당첨을 축하합니다!

No	팀명	이름	No	팀명	이름
1	대형압연팀	최상봉	11	물류지원팀	안희성
2	대형압연팀	김영채	12	물류지원팀	장덕현
3	중형압연팀	김현중	13	물류지원팀	윤경조
4	기계정비팀	이원두	14	물류지원팀	차재동
5	기계정비팀	윤도현	15	물류지원팀	김원겸
6	기계정비팀	송인수	16	물류지원팀	장석민
7	전기정비팀	강한철	17	물류지원팀	이현상
8	전기정비팀	김석주	18	물류지원팀	봉유환
9	전기정비팀	박정환	19	물류지원팀	신윤철
10	물류지원팀	김진호(****300)	20	물류지원팀	신진광